

Changes in Multicultural Awareness of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ing in Multicultural Programs

Misuk Par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rocess of change of multicultural perception of high school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multicultural programs, and propose the activation of participation in multicultural programs to ordinary students. To do this, I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9 high school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Ketban Program"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and analyzed the process of their change in multicultural awarenes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students had unknowingly prejudices and discrimination against multiculturalism. Second,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became an opportunity to sympathize with the reality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to change their percep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Third, many students hoped to have multicultural experiences through multicultural programs. Fourth, I became aware of the need for realistic multicultural education at school sit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 order to improve the multicultural awareness for ordinary students, the opportunity for multicultural experience activities should be expanded, concrete and realistic multicultural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in the school.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the basic material for organizing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s of ordinary high school.

Key Words: Multicultural Program, Multicultural Perception, Multicultural Family, Multicultural Education, Ketban Program

다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한 고등학생의 다문화인식 변화

박 미 숙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한 일반학교 고등학생들의 다문화인식 변화과정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일반 학생의 다문화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켓반프로그램'에 참여한 고등학생 9명을 심층인터뷰하고 이들의 다문화인식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학생들은 자신도 모르게 다문화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다문화가족의 현실을 공감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 기회가 되었다. 셋째, 더 많은 학생들이 다문화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체험을 할 수 있길 바라고 있었다. 넷째, 학교현장에서 현실적인 다문화교육의 변화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일반학생들의 다문화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체험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에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가 일반 고등학교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기초자료가 되길 기대한다.

핵심어: 다문화프로그램, 다문화인식, 다문화가족, 다문화교육, 켓반프로그램

□ 접수일: 2020년 1월 28일, 수정일: 2020년 2월 15일, 게재확정일: 2020년 2월 20일

* 인하대학교 BK21+ 다문화교육사업팀 연구교수(Professor, Inha Univ., parkmisuk@inha.ac.kr)

I. 서론

우리 사회는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난민들이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에 다양한 이민자의 증가는 다문화 사회라는 말이 낯설지 않을 정도로 보편적인 용어가 되었다. 한국사회는 다문화가족을 위해 다양한 법적, 정책적, 경제적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정 자녀의 질적으로 안정적인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법무부(2019)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242만명이 넘어서었다. 또한 국내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은 137,225명으로 2010년 31,788명보다 4배 이상 증가하였다. 다문화학생의 유형별 재학현황을 살펴보면 국내출생 학생이 108,069명(79%)을 차지하며 그 다음은 외국인학생이 20,459명(15%)과 중도입국학생이 8,697명(6%)를 차지한다(중앙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9). 다문화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이를 거부하거나 막으려고 하기보다는 이들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전환하는 사고가 필요하다(박미숙, 2016).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정부는 다문화학생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는 한편, 모든 학생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벨트 형 다문화교육 중심학교’¹⁾ ‘다문화중점학교’²⁾ ‘다문화예비학교’³⁾를 통해 이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교육은 이러한 학교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일선학교에서도 실정에 맞게 추진되도록 학교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다문화교육을 통하여 다른 문화의 관점에서 자신의 문화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다문화사회에 요구되는 지식과 기능, 태도를 습득하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학생들의 다문화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김선미, 2000). 그러므로 학교현장의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정 학생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되며 모든 학생들에게 예산 배부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실천해야 할 교육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의 다문화교육은 매우 한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1) 2006년부터 시작된 인천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인천시 전체 초, 중학교를 인접한 학교끼리 벨트로 묶고 그 중 중심이 되는 학교 1곳에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벨트 내 학교의 다문화학생을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

2) 2012년부터 시작된 교육부의 정책사업, 전교생을 대상으로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3) 2012년부터 시작된 교육부의 정책사업, 정규교육과정 시간에 10시간 내외의 한국어(KSL)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일반학생들이 다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다문화감수성을 함양하고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등학생들의 다문화인식에 대한 선행연구(강운선, 2014; 김정현 외, 2013; 서봉언, 2017; 임운, 2017; 정지현·김영순·홍정훈, 2014) 등은 매우 미흡하다. 이런 연구들은 고등학생들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이나 다문화수용정도, 다문화교육이 미치는 문화민감성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정지현·김영순·홍정훈(2014)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다문화체험 경험에 대해 연구하였으나 다문화리터러시 경험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같이 고등학생들이 직접 다문화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체험한 후 이를 통해 다문화인식이 개선되거나 변화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 고등학생들이 다문화프로그램에 참여경험을 통하여 다문화인식의 변화과정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일반 학생들의 다문화교육의 변화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천 B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젓반프로그램'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을 심층인터뷰하여 다문화인식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일반 학생들의 다문화인식이 변화되길 기대한다.

II. 일반학생의 다문화수용과 다문화인식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하여 가족 관계 증진을 위한 집합교육, 한국어교육, 방문교육, 상담, 정보 안내,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자녀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국에 217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의 다문화수용성은 매우 미흡하다. 다문화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은 서로 다른 환경과 생각을 가진 다른 구성원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최원희·박미숙, 2019). 특히 일반 고등학생들은 다문화수용성을 통해 다른 민족이나 인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이러한 태도는 청년기, 성인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문화사회에서 다문화수용성은 중요한 요소이다(서봉언, 2017).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 및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현장에서는 교과를 연계한 교육 및 동아리활동, 세계인의 날 행사 등 비교과 연계 교육을 통하여 모든 학생들 대상으로 실

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반학생들이 다문화사회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다문화인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문화인식은 다른 나라의 문화, 성, 계층, 종교 등 영역에서 다양한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과 자신의 차이를 수용할 수 있는 지식, 마음가짐, 태도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김선미, 2000).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사람은 자신과 다른 배경으로 인해 다르게 행동하고 다른 가치를 지닌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 즉 다문화인식을 한다는 것은 다문화에 대하여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인 요소를 모두 갖추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다문화인식이 높을수록 다문화사회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다문화사회에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다(김영순, 2017). 이처럼 글로벌 시대에 맞게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상황에 따른 다문화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문화인식이 개선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어려서부터 이를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서의 다양한 문화 공존과 이주민의 이해, 다문화 사회를 접하는 태도 등을 배우고 다문화인식이 확장되면서 다문화정체성을 확립해가야 한다.

특히 학교와 교실은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학생의 다문화인식은 다문화교육을 설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강운선, 2014). 특히 다문화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다문화인식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인식을 높일 수 있는 다문화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이다. 학교현장에서 진행되는 다문화프로그램은 일시적이고 한정적이어서 교과안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나마 비교과과정에서 소수의 시간을 배정하여 집합교육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통해 다문화 가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올바른 시선으로 학생들을 이끌어 가기는 부족하다.

오히려 학교 내 보단 학교 밖의 다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더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힘들고 또 다문화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지 않은 이상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긴 힘들다. 그러므로 많은 학생이 듣고 자신의 생각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학교 안에서 다문화 교육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일반학생들의 다문화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일반 고등학생들의 다문화프로그램 참여경험을 통하여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인천의 B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갯반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갯반프로그램이란 베트남어로 ‘친구 사귀기’라는 뜻으로, 다문화 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이전에 봉사자들의 다문화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 봉사활동에서 갖춰야 할 태도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연구참여자 선정은 갯반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고등학생으로 연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학생 9명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참여자의 개인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개인적인 특성

참여자	학년	계열	학교	봉사경험	좋았던시간	아쉬웠던시간
1	2	이과	M고	한국어교육	조별활동	일정조율문제
2	2	문과	H고	일반봉사	음식체험	짧았던 교육
3	2	문과	G고	다문화봉사	조별활동	일정조율문제
4	2	문과	M고	일반봉사	경험발표	프로그램구성
5	2	문과	S고	일반봉사	조별활동	흥미부족
6	2	문과	M고	다문화봉사	조별활동	일정조율문제
7	2	문과	M고	일반봉사	영상시청	흥미부족
8	2	문과	M고	일반봉사	경험발표	구체적 방안
9	2	문과	M고	일반봉사	음식체험	이론적 교육

모든 참여자들이 갯반 프로그램 참여한 횟수는 총 3회이다. 학생들의 계열은 이과1명, 문과 8명으로 구성되었다. 출신학교 인천의 M여고 재학 중인 학생 6명과 S여고, G학교, H학교 학생 각각 1명이다. 모든 학생들이 봉사활동 경험이 있었으나 다문화기관에서 봉사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도 3명이다. 각자 프로그램에서 좋았던 시간으로 가장 많은 것이 조별 활동이었으며 아쉬웠던 시간은 학교와 일정이 조율되지 않는 문제가 가장 많았다.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과 분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먼저 연구에 앞서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동의를 받은 후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개인별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심층면접은 질문지를 구성한 후 개인별로 40분 정도 1회씩 진행하였다. 면접 장소는 학교의 조용한 교실에서 실시하였으며 인터뷰 이전 연구참여자에게 동의를 구한 후 인터뷰 내용은 녹음을 하였다. 녹음한 내용은 한글로 텍스트 한 후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인터뷰내용은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경험에 대한 유의미한 문장을 뽑아 연구참여자들과 공유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이 작성한 활동일지를 통해 학생들의 변화과정을 살

펴보았다.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연구참여자와 다른 질적연구자에게 검증 받아 연구윤리를 확보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영상을 통해 본 한국의 다문화인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인은 주로 결혼이주여성, 외국인노동자, 외국인유학생, 북한 이탈주민, 난민으로 나눌 수 있다. 연구에 참여한 여고생들은 깻반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다문화인들에 대한 자료를 영상으로 접할 수 있었다. 이제까지 경험한 다문화교육과 다르게 다문화인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사례를 접할 수 있었다. 특히 깻반프로그램에서는 학교에서 접하거나 보지 못한 다문화인 생활이 담긴 영상을 통해 다문화인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이처럼 다양한 영상을 통한 리터러시 교육은 다문화사회의 맥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자신과 사회를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비판적이고 성찰적인 주체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정지현·김영순·홍정훈, 2014)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단은 깻반프로그램을 하면서 동영상 자료를 통한 교육을 통해 좀 더 다문화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들이 느끼는 어려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모둠활동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생각을 다른 학생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변의 다문화인들의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연구참여자 6).

영상시청이 가장 좋았어요. 시청했던 영상이 학교에서 보여주는 일반적인 영상과 다르게 신선한 영상이라서 좋았어요. 특히, 피부색을 통해 나오는 생각해보지 못한 차별을 봄으로서 교육의 필요성을 더 깨닫게 되었어요(연구참여자 7).

2. 다문화음식과 놀이를 통한 체험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나라의 문화체험과 음식문화 체험을 가장 선호한다. 그 이유는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통해 그 나라의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춘옥·김관희,

2011).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 역시 께반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한 나라의 다문화음식과 놀이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다.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나라의 음식과 놀이문화는 여고생들에게 새로운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충격으로 다가왔다. 텔레비전 영상을 통해서 보았던 음식들을 다문화인들과 함께 만들어보고, 함께 하면서 이들의 문화에 매력을 느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고등학생들은 다문화인들의 문화를 함께 체험하면서 다문화인에 대한 이해가 재구성되었다.

각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알아본다는 것에 매력을 느꼈고 다문화를 바라보는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었어요(연구참여자 2).

다문화프로그램 교육 중에는 다문화 분들과 만날 기회가 없었지만 음식체험 활동 같은 과정 안에서 다문화분들과 만나서 직접 대화도 나눠보고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다문화가정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어요(연구참여자 8).

3. 내 안에 있었던 다문화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편견이란 사전 지식이나 생각, 또는 이성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사람에 대해 가지는 태도나 감정을 말한다(Jones & Sparks, 1992). 그러나 차별은 편견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허영식, 2015). 편견과 차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으로 자리 잡는 경우가 많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 본연의 모습 안에 다문화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새롭게 알게 되었다. 이처럼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자아탄력성을 형성하면 주변 상황이나 변화에 대해 자신이 대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지각을 가지게 된다(김민수·이은정, 2019).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 역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다.

평소 다문화인에 대한 편견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프로그램 수업을 받은 후에 나도 알지 못했던 숨겨진 편견들이 있었다는 것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어요(연구참여자 3).

주변의 다문화 친구들에 대한 선입견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었어요(연구참여자 4).

다문화가 무엇인지 아는 것을 시작으로 다문화인들을 이해를 하고, 우리의 경험과 각자의 방법(의견)에 토의하면서 궁극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어요(연구참여자 8).

4. 다문화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

연구에 참여한 켓반프로그램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인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새롭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학생들은 다문화인들이 우리와 다르게 불쌍하거나 다른 환경의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우리와 다르지 않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은 다문화에 대한 편협한 생각을 다른 많은 일반학생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함께 하였다. 이처럼 다문화학생들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반학생들에게 다문화교육, 인권 및 평화감수성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배은주, 2018). 이처럼 학생들은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통하여 자신들이 알고 있던 지식을 재구성(정지현·김영순·홍정훈, 201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많은 고등학생들이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현장체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나 보다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프로그램을 통해 아픔을 깨닫게 되었고 그들의 문화가 우리나라 안에서 생활하는데 대한 힘든 점들을 더욱 이해하게 되었던 것 같았어요(연구참여자 1).

다문화인들이 마냥 불쌍한 존재인 줄로만 알았는데 막상 프로그램을 참여해 보니 그냥 단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친구들도 많이 그럴거라 생각해요(연구참여자 6).

아이에 대한 직접적인 배경이나 아이의 생활 모습을 알게 되어 그런 면이 다문화인들을 이해하는데 좋았어요(연구참여자 7).

5. 다문화가족에 대한 공감

켓반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은 다문화에 대한 이론과 영상을 통해 다문화인들에 대해 공감하게 되었다. 이들이 한국생활에서 어떠한 점이 어렵고 불편한지 현실적인 문제를 알 수 있었으며 또한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알게 되었다. 이처럼 학생들이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아야 된다는 인권존중의식이 강화되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박미숙·손영화, 2019)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은 다문화인들의 인권존중의식과 다문화감수성이 발달되면서 다문화가족들에 대해 공감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자신과 같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해 더욱 이해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한 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였다.

프로그램 참여 전과 달리,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게 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다문화인들의 생활적인 불편함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연구참여자 4).

참여 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프로그램 참여 후 다문화인이 우리나라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지원이 부족한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연구참여자 9).

6. 학교 다문화교육의 변화가 필요함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교 다문화교육의 변화가 필요함을 께반프로그램을 통하여 인식하게 되었다. 다문화교육에 있어 다수자들의 인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학교에서는 다문화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현길자·염미경,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참여자들은 다문화교육이 학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다문화인들이 증가하는 시점에 다수자들의 다문화인식이 변화되어야 함께 상생하는 사회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등학생들은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학교 다문화교육의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김정현 외, 2013). 특히 임운(2017)의 주장과 같이 공동사회 또는 사회문화, 윤리 교과를 통하여 다문화교육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학교에 다문화에 대한 교육이 현재 다문화사회에 비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더욱 학생들에게 다문화 교육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학생들 개개인이 그런 다문화에 대한 깊은 생각과 인식을 가지지 못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고 그들이 살았던 환경과 그들이 살아온 생활을 프로그램을 통해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연구참여자 1).

다문화인들이 우리나라에 계속 증가하는 것에 맞추어 무엇보다도 학생에게 다문화에 관련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서로의 이해가 없는 사이에서 어떠한 갈등이 일어날지는 모르기 때문이에요(연구참여자 5).

사회문화에 있는 다문화와 관련된 내용에 연관 지어 프로그램을 넣거나 기술 가정시간에 다른 나라의 의복 등을 배우는 것처럼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자세히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9).

V.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 프로그램인 깻반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자고등학생들의 다문화인식 변화 과정을 탐색하고 학교 다문화교육의 개선을 통하여 일반학생들의 참여 활성화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천 B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한 ‘깻반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등학생 9명을 심층인터뷰하고 이들의 경험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영상을 통해 한국으로 다문화현상과 다문화인들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둘째, 다양한 음식체험과 놀이문화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되었다. 셋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다문화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학생들은 다문화인들이 자신과 크게 다르지 않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섯째, 다문화가정은 물론 다문화가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다. 여섯째,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교에서 좀 더 현실적인 학교에서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학교현장의 다문화교육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아직 많은 고등학생들이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문화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제대로 된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스스로 편견과 차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등학생들은 다문화프로그램을 통하여 다문화가족의 현실을 공감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많은 일반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문화프로그램 구축과 활동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들이 참여한 프로그램은 다문화관련 봉사활동을 실시하기 전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형식적으로 실행하는 다문화교육과 다르게 직접 그들의 문화를 체험하고 다양한 문제를 토론하면서 학생들이 다문화가족을 더욱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해 학교의 다문화교육이 형식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많은 학생들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는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인원으로 연구를 이끌었다는 연구의 제한점을 가진다. 후속연구에서는 더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과 더 많은 수의 연구참여자를 통해 구체적이고 생생한 연구를 이끌어내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민수·이은정(2019), “다문화가정 아동의 가족 사회자본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10(2): 59-72.
- 김선미(2000),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사회과 적용에 따른 문제”, 『사회과교육학연구』, 4: 63-81.
- 김영순(2017),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이론가들』, 북코리아.
- 김정현·송진숙·문희강·이명희(2013), “대전시 중고등학생의 다문화사회 인식과 다문화교육 경험이 문화적 민감성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교육 필요성 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1: 107-118.
- 박미숙(2016),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사회적 실천과정에 관한 근거이론적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미숙·손영화(2019), “난민의 인권인식과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10(3): 383-397.
- 법무부(2019), “통계월보”, <www.moj.go.kr>.
- 배은주(2018), “인천광역시 다문화 학생의 현황의 특징과 정책 시사점”, 『인천연구원』,
- 서봉연(2017), “대구시 고등학생과 학부모의 다문화수용실태 및 구조적 관계-대구교육실태 연구 2016를 활용하여”,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 10: 53-79.
- 이춘옥·김판희(2011), “원어민 교사와 함께하는 체험중심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아동교육』, 20(2): 187-206.
- 임운(2017), “강원도 원주지역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다문화적 태도와 다문화교육인식에 고나한 조사연구”, 『교원교육』, 33(4): 1-24.
- 중앙다문화교육센터(2019), “통계정보”, <<https://www.edu4mc.or.kr>>.
- 정지현·김영순·홍정훈(2014), “다문화리더러시 교육 프로그램 참여 고등학생의 다문화인식에 관한 연구”, 『열린교육연구』, 22(2): 19-41.
- 최원희·박미숙(2019),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포상담당관의 봉사경험에 나타난 다문화인식에 관한 연구”, 『다문화와 평화』, 13(2): 126-146.
- 허영식(2015), “다문화사회에서 편견과 차별의 문제 해결방안”, 『다문화와 인간』, 4(2): 3-32.
- 현길자·염미경(2014),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제주시지역 다문화교육 중심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교사교육연구』, 53(1): 304-320.

Jones, E. & D. L. Sparks(1992), Meeting the challenge of diversity, 『Young Children』, 4: 154-170.